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목사 · 장로 안식년제 채택 재시무 시엔 신임투표하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 장로 안식년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필요성과 기대 효과

목사 · 장로 안식년제란 목사는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장로는 4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을 각각 갖고 안식년이 끝날 경우 당회의 신임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케 된다는 것이다. 이때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 넘겨 신임투표를 받게 된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선출되어 임직을 받은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얼마간의 시무를 한 후에 휴무하면서 안식과 더불어 영성훈련과 타교회 탐방, 심신의 재충전, 예배 회복 그리고 처음 임직할 때의 첫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은퇴할 때까지 치리할 수 있는 위임 목사나 치리장로들이 기득권을 갖고 교회 분사를 게을리하거나 지나치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식년을 가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되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세칙

시행세칙에 따르면 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안식년을 반납할 수도 있다. 장로는 본 교회 시무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미 임기(시무 후 4년)가 지난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직 후 시무 기간이 4년이 되지 않은 장로는 임직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우리교회의 경우

우리 교회는 이 제도를 채택하여 소급 적용키로 하되 이미 안식년이 지난 이들은 안식년

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신임투표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를 했다.

한편 1998년도에 안식년을 맞게 된 이종윤 목사는 교회 형편상 안식년을 반납하겠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회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단 신임투표를 행하기로 하고 지난 15일(토)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결과 당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종윤 목사를 담임목사로 다시 모시는 절차를 밟았다.

또한 부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는 매년 말에 당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하기로 했다.

70세 당회원은 은퇴에 관하여는 본 교회의 특수 사정으로 인해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교회 헌당식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단 70세 이상된 은퇴 장로는 당회에는 참여하나 보직은 맡지 않기로 했다.

헌법적 근거

이 제도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개정 전 헌법에서는 "장로는 3년에 1차씩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헌법적 근거가 분명했으나, 현재는 이를 정년(70세)제도로 개정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교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능동적이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제 2편 제 5장 35, 36, 37조와 제 6장 43, 46, 47조에 의거 인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교회는 개척시 이 제도를 결의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이를 시행하면서 한국교회 갱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계에 큰 파문

서울교회 당회가 한국 교회의 갱신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목사 · 장로 안식년제도에 대

해 교계 신문들이 일제히 찬사를 보내며 환영의 글을 실고 있다. 우리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보를 비롯해 주요 언론사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서울교회 당회에 존경과 고마움을 표했다.

새 예배당 소식

건축설계도서 완성

- 입찰준비완료 -



우리 교회 새 예배당 건축설계도서 및 시방서가 지난 21일(금) 완성되어 교회가 이를 정립건축으로부터 인수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하여 최종도서가 완성됨에 따라 당회는 입찰을 위한 특별준비위원회를 준비하고 임중한 심사단계를 거쳐 우리 교회 시공 회사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에 응하기를 원하는 회사는 8월 25일(화), 26일(수) 양일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받게 되며 정한 기일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한국 교회의 관심과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교회 새 예배당 신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은 회사에 의해 시공될 수 있도록은 교회는 기도를 더욱 힘써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사야 강해

무너지는 이스라엘 IV

이사야 10장 1-4절

본문은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신앙의 증진을 방해하고 협력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9장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1 구조적인 죄를 지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악법을 만들고 그 법을 발표하여 온 백성들에게 불의한 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악법을 만든 자나, 이 법을 기록으로 남긴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을 주동한 사람도 나쁘지만 악을 도와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법관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법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법을 사람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가난한 자를 토색하고 약한 자를 더 괴롭히는 일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법 적용을 바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굴곡시키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불공평, 부정의, 편파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이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2. 하나님의 도전

악한 자들은 모든 것을 탈취 당하지만 항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힘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남을 황폐케 한 사람은 결국 자기도 황폐해지는데 그 황폐는 멀리

하나님의 도전은 무서운 것입니다.

3. 죄인들에 대한 선고

죄인들의 운명은 확실합니다. 포로된 자는 감금된 자입니다. 그런데 감금된 자의 아래에 구부렸다는 것은 감금된 자가 밟고 간다는 말입니다. 또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 아니라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사 10:1-4)



이종운 목사

서부터 올 것이고, 비록 더디게 오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셨을 때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날에는 각 사람의 일이 모두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들릴 때 당황할 것입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천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재물을 영광으로 생각하던 사람의 영화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재물이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재물은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신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재물이라면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얻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진다는 것은 시체가 와서 덮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짓밟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포로에게 짓밟히게 되고 시체에 덮히게 되니 숨도 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전될 수 없는 영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관점으로만 보면 안됩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사는 길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겸손의 허리띠를 두르게 됩니다.

오늘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2기 서울시민대학 영입직재취업과정 참가자 설문조사

“지식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은 지난 6일 영입직재취업과정 세미나를 수료한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의 95.8%가 세미나의 교육내용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교회에 대해 이 시대에 알맞는 교회의 선구자적 역할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기에도 제 1기와 마찬가지로 참석자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참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육내용에 대해 전 참석자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현재 종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45.8%), 천주교(6.2%)로 응답했으며 31.2%인 15명이 무교라고 응답했고 불교라고 대답한 사람도 10.4%(5명)에 달했다. 앞으로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0%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무응답이 33.4%였다. 앞으로 서울교회가 추진하는 각종 활동에 관련된 자료의 수신여부에 대해서

75%가 예라고 답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차후에 열릴 세미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가의 여부에 대해 33.3%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또 본 교회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 선교와 열정적 봉사에 감동과 감사를 표한 것이 50%, 건실하고 안정되며 가정적 분위기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는 응답이 27.1%였으며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응답과 이웃을 돕는 일에 조직적이며 친절하여 이 일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각각 10.4%를 차지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후의 소

감을 묻는 질문엔 43.8%가 자기 개발과 영업직에 대한 체계적 지식,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고 응답해 서울시민대학 창립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민대학 참석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감명을 받았다”, “이런 기회가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좀더 다양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식사한 주제를 떠나 구체적인 사례와 특강이 많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세미나에 관한 소감

자기 개발과 영업직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용기, 자신감을 얻었다	21명(43.8%)
이 시대에 알맞는 교회의 선구자적 역할에 감사한다	14명(29.2%)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에 감명을 받았다	5명(10.4%)
이런 기회가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주 2회로)	4명(8.3%)
좀더 다양한 강사진과 구체적인 사례의 특강이 많았으면 좋겠다	4명(8.3%)
계	48명(100%)

교회에 대해 느낀 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교와 열정적 봉사에 감동과 감사를 표한다	24명(50.0%)
건실하고 안정되며 가정적 분위기에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다	13명(27.1%)
이웃을 돕는 일에 조직적이며 친절했다 이 일이 확산되길 바란다	5명(10.4%)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5명(10.4%)
점심식사가 정갈하고 맛이 있었다	1명(2.1%)
계	48명(100%)

목사·장로 안식년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

- 1) 교회헌법 제 2편 제 1장 제 2조의 '교회의 자유' 원리에 의해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입교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는 항목에 준하여 본 규정을 정한다.
- 2) 헌법 제 2편 정치 1장 원리 1조에 의하면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어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서울교회 당회는 성경 교훈에 위반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면서 양심 자유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목사·장로 안식년 제도를 채택한다.
- 3) 헌법 제 2편 5장 36조와 6장 46조에 각각 목사·장로 휴무 제도에 의거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제도를 도입, 목사 6년 그리고 장로 4년 시무 후 1년씩 안식년을 갖기로 한다.
- 4) 안식년 후 재시무를 할 때는 헌법 2편 5장 37조 2항과 6장 47조 2항에 목사·장로가 자의 사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목사는 노회원, 장로는 소속 당회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을 가진 목사와 장로가 사직은 아니지만 휴무 및 사임의 복직에 대하여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정신에 따라 당회원 2/3 이상 허락을 받아 재시무기로 한다. 단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엔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신앙 양심 상 합당하다고 서울교회 당회는 해석한다.

- 5) 목사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

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를 거쳐 헌법해석서 제 4장 52조 3항에 의거 처리한다.

- 6) 장로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헌법 2편 6장 43조 2항, 헌법해석서 제 4장 62조에 의거 공동의회에 몰아 시무 여부를 처리할 수 있다.
- 7) "휴무 기간 중 장로의 그 직위는 계속되거나 당회 성원수를 위한 정원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서 4장 56조에 의거, 성찬식 시 교회 화목과 일치를 위해 휴무 기간 중이라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순례자 컬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희망은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이며 완성에 대한 지향이다. 희망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는 있어도 생존할 수는 없다.

희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 중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범례를 남겨준 인물이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희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물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희망을 갖고 견디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이미 죽은 자와 병환한 자기 아내와 자신의 백세라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 나가자.

제 14학기 목회자세미나에 수고하실 분 모집

— 동정 —

◇ 김상철 장로(3교구, 임마누엘찬양대장)는 28일(금) 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 이동만 집사(1교구, 할렐루아찬양대원)는 19일(수) 제 13회 '99 한국남성복기술헌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상패와 상품을 받았다.

◇ 황정욱 · 주경자 집사 전화번호
변경(☎ 547-3254-5)

◇ 오늘 점심식사는 당회원 가족 일동이 제공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13:8).



우송료는 수혜자 부담

우리교회 부설 필그림출판사에서는 매주 발간되는 **순례자**와 **주일 설교 테이프** 발송을 대행한다.

지방·군부대·해외에 있는 친지들에게 순례자나 설교테이프를 보내기 원하는 성도가 테이프 값과 송료를 부담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이를 발송하게 된다. 국내 및 해외의 지역별 신청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은 연간 송료 혹은 송료와 테이프 값과 함께 신청인, 받을 사람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내면 된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1년, 단위:원)

구분	지역	국내	해외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북미 유럽 서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순혜자		12,000원	26,000원	28,000원	33,000원	35,000원
순혜자+테이프		65,000원	115,000원	120,000원	145,000원	160,000원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 교과과정표(9 - 12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룻기	월요일 오전 11시	이성득 목사	9월 7일
	마태복음	월요일 오후 8시	김정환 목사	9월 7일
	요한서신	화요일 오전 6시	민영수 목사	9월 8일
	요나	화요일 오후 8시	이순환 목사	9월 8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10일
음악 교실	음악이론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안진희 선생	9월 10일
	발성과 가창훈련	목요일 오후 8시 15분	배영준 집사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음악교실의 수강료는 과목당 오천원이며 첫 수강자의 등록비는 오천원이다. 문의 및 접수는 사무국.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L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사·장로 안식년제가 한국교회갱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 제 14학기 목회신학세미나를 위해
3.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말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말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